

<수많은 선택지 속 단 하나의 이정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결제와 할인카드, 회원고객 혜택에 대한 안내 멘트를 외치는 와중에도 길게 늘어선 줄 옆에 서서 서성이는 한 아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표정을 보아하니 계산을 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눈치는 아니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당장 밀린 손님이 한 둘이 아니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삼십 분 정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마지막 손님의 결제를 끝낸 참이었다. 텅 빈 카운터 앞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한숨 돌리는 김에 차가운 음료수라도 한 모금 들이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주먹을 말아 쥐고 빠른 어깨를 툭툭 치며, 영수증과 펜으로 난잡해진 카운터를 치우고 있자 누군가가 앞으로 와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까 전부터 카운터 근처를 서성이던 앓된 얼굴의 여자 아이였다. 대강 어림 잡아도 삼십 분을 훨씬 넘게 기다린 셈인데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매장 내에서 질 나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건 아닐까. 여전히 살 물건을 들고 있거나 다급해 보이진 않았지만,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확실히 말해주기 전에는 속마음을 알기 어려우니 말이다. 나는 아이에게 최대한 살갑게 말을 걸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게 있을까요?”

“.....”

“괜찮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

내가 호의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미소를 머금었지만 아이는 쉽사리 말문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뒤로 감춘 어정쩡한 자세로 우물쭈물하며 얼굴을 더욱 더 붉힐 뿐이었다. 나로서는 당장 카운터 정리가 급한 일도 아니었으니 천천히 아이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떨고 있지도 않고 안색이 창백하지도 않은 점,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다행히도 불상사에 휘말린 것 같지는 않았다. 와중에 손님 두어 명이 더 계산을 하고 가셨다. 이제 거의 한 시간이 지난 즈음이었다. 카운터 앞에 계속 세워두기도 미안하고, 아이의 다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해서 나는 다시 한 번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매장 이용에 불편하신 게 있으셨나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향후 운영

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내 표정에서 난처함을 읽은 것인지, 아이는 뒤로 감췄던 손 하나를 빼내어 손사래를 치며 도리질을 했다. 가냘픈 목소리. 더욱 더 오리무중에 빠져든 나는 고개를 가우똥 기울였다. 그러자 아이는 결심했다는 듯 여전히 뒤로 감춰둔 남은 한 손마저 꺼내어 내 앞으로 내밀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맛 우유. 종이팩 표면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뒤 꽤 오랜 시간 들고 있었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걸 왜 나에게? 당황한 나는 그 우유를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예상한 몇 가지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생리대를 빌린다든지,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매장 물건에 살짝 손상을 입혔다든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흥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다.

“저번에 왔을 때, 친절하게 해주신 게 기억에 남아서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듣자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일전에 회원가입을 하지 못해 찢찢때는 아이를 차근차근 도와줬던 적이 있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이에게 제법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다. 나도 덩달아 얼굴이 빨개졌다. 귀가 달아올라서 순식간에 더워지는 기분이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친절한 나’ 라는 이미지에 도취되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내민, 조그마한 200ml짜리 우유를 잠시 바라보았다. 별안간 수 년 전의 희미한 추억이 아스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중학생 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조금 더 살살 깨물고 싶은 손가락은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어떤 선생님이든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더 좋아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 그에 불만은 없었다.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지도, 그런 식의 조건부 사랑을 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인 척을 했었던 것 같다. 누구보다 애정에 목말라 있었기에 오히려 초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나는 방과 후 집에 틀어박혀서 내

또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고전 영화나 독립 영화들을 주구장창 봤다. 느릿한 장면이나 사운드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마음에 꼭 박힌 대사와 장면들은 내 내면을 차곡차곡 채워서 지겨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내신 국어 선생님 대신 새로운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다. 칠판에 성함을 쓰시고 푸근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젊은데다가 유머감이 있고 모두에게 친절하셨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 쉬는 시간이면 교무실이 선생님을 보러 온 학생들로 북적거릴 정도였다. 나 역시 선생님이 좋았고, 친해지고 싶었지만, 말주변도 없고 감정표현도 서툰 나로서는 다가갈 방도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잘못된 게 없는데도 교무실로 불린 적은 처음이라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별 내색 않고 선생님을 따라갔다. 선생님은 상담실로 나를 데려가더니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번 독후감, 정말 잘 읽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 일단 그 책과 다른 영화를 결부 지어서 스토리를 엮은 것도 참신했지만 비평이 남다르더구나. 평소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문장력도 탄탄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도내 독후감 경연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이렇게만 써서 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듯한데.”

성적도 운동신경도 평균을 겨우 웃돌던 나에게 이런 식의 칭찬을 해준 것은 선생님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내가 조용하게 다져온 ‘어떤 세계’를 한 번에 알아주기까지. 내 글 실력이 실제로 뛰어나든 아니든, 자신이 있든 없든 나는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 세계를 향해 손을 뻗어준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대상을 수상했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 수상경력을 쌓았다. 부모님도 내 재능의 발견을 달가워하셨고, 학교에서도 꽤나 입지가 두터워졌다. 운동장 조회 시간마다 조회대에 올라가 상을 받는 것도 즐거웠다. 선생님은 복도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셨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 같았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백화점에서 고급 넥타이를 샀다. 꽤 비싼 남성 정장 브랜드였는데, 상금에서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에 용돈을 보태서 겨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모을 수도 없었던 돈이니까. 마지막 겨울 방학만이 남은 학교는 썰렁했다. 학생들은 거의 자거나, 수업을 멍멍이 치거나, 학교를 잘 나오지 않았다. 나도 이미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붙어서 출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꾸준히 아홉 시에 등교를 했다.

방학식 전날, 나는 교무실로 내려가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셨다. 바로 선물을 드릴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뒤로 감춘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소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는 화젯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물쭈물하며 진땀을 뺐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눈치 채셨는지, 부드러운 말투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봐 주셨다. 결국 긴장으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린 나는 준비했던 감사 인사는커녕 아예 입도 열지 못하고 선생님께 포장된 넥타이 박스를 불쑥 내밀었다. 선생님께서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셨다. 나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뒤 졸업식에 이 넥타이를 하고 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그저 너에게 다른 길도 있다고 알려주는 수많은 이정표 중 하나가 되어줬을 뿐이야. 모든 건 네가 해낸 일이니까, 나 대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선생으로써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네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니 마음만큼은 내가 지니고 있도록 하마.”

결국 선생님께서는 선물을 받지 않으셨다. 나는 약간의 수치심과 당황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생님이 실은 나를 싫어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하는 피해의식까지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후에 동창회에서 알게 된 바로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평소 건네는 과자나 초콜릿, 작은 선물조차도 일절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선물의 크기와 가격을 떠나서, 그것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뒤로는 거절할 명분도, 자신도 없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어찌 보면 융통성 없고, 조금 고지식한 처사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도 없었고, 학부모들의 선물이나 단체음식도 공공연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새로이 알게 된 선생님의 곧은 면모에 더욱 더 깊은 인상

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록 기간제 교사였던 만큼 다시 뵈 방법은 없겠지만 선생님을 영원히 내 마음 속 귀감으로 삼게 되었다.

“죄송하지만, 매장 내 규칙 상 고객님의 물리적인 것을 받을 수 없어서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기억해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마음만큼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자주 올게요.”

예상 외로, 아이는 별로 실망한 기색도 없이 금세 납득을 하고는 인사를 꾸벅 하고 사라졌다. 마침 손님도 없는 참이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당장의 기분만큼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언제나 내 책상 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급 넥타이의 색 바랜 박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늘 옳은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선생님이 유난히 보고 싶어졌다. 나는 어 느새 선생님처럼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